

■ 광주시,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 개관 추진

지역화가 중앙 진출 창구 마련

광역지자체론 처음...내년3월 목표
창작 활동 지원·전시공간 대여

광주시가 지역 미술인들에게 중앙화단의 진출을 열어주기 위해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 개관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미술인들이 서울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싶어도 막대한 전시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 실정에서 지역미술 공간이 확보될 경우 향토작가 육성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광주시와 시립미술관에 따르면 내년 3월 가칭 '광주시립미술관 인사동 갤러리' 개관을 목표로 부지선정 작업과 소요 예산(50억원) 편성 등 실무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작가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갤러리를 운영한 사례는 있으나 중앙 무대에서 광역지자체가 갤러리를 개관하는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예향 광주의 대표적 인적 자산인 작가들의 창작 육구를 복돋우고 문화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소 50평 이상 규모로 개설될 인사동 갤러리는 지역 작가들의 개인전과 그룹전, 기획전, 초대전 개최 장소로 이용된다. 시는 지역 작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시 공간을 대여해 운영재원을 충당하는 한편, 부족한 자금을 시비로 조달키로 했다.

광주시립미술관 부속 시설형태로 운영될 인사갤러리에는 시립미술관 직원 1명이 파견된다.

갤러리 개관은 지역 미술계에 단기 같은 소식으



광주시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작가들의 중앙무대 진출을 넓히기 위해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 개관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인사동 거리.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양화가 한희원씨는 "일주일 전시관 대여비용만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서울 전시의 지역작가들에게 '꿈'이나 다름 없었다"며 "광주시가 전용관을 개관할 경우 지역 작가 육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국내 미술의 중심지인 인사동에 갤러리를 오픈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청담동에 미술관을 개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1차 소요 예산 50여억원은 오는 9월 광주시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광주시 사무소와 비엔날레 출장소가 현재 서울에 있는 점을 감안,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건물을 매입, 갤러리, 출장소, 특산물 판매 코너를 갖춘 복합 건물로 조성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위길환 광주시 문화체육정책실장은 "인사동 갤러리가 개관할 경우 광주 작가들에게 중앙무대 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향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빛과 색의 오묘한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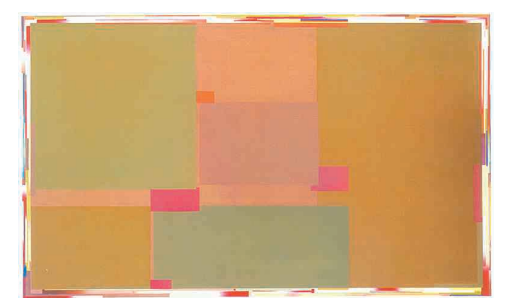
우제길 개인전 4일까지 우제길미술관·서울 필립강갤러리

빛을 캔버스에 담고 있는 중진 서양화가 우제길씨가 4일까지 우제길 미술관과 서울 필립강갤러리에서 'Light-647'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에서 우씨는 40여년 동안 빛을 포착해온 추상회화의 작업세계를 선보인다. 'Light 2007-Y-3H', 'Light 2007-3F'는 빛의 충위를 보여주는 기존 작업에서 벗어나 밝고 따뜻한 원색을 폭넓게 배치함으로써 빛과 색이 어우러진 새로운 작업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씨의 이번 전시는 작업실을 공개하는, 일종의 오픈스튜디오 전이다. 전시 주제인 'Light-647'은 작업의 화두인 'Light'와 광주시 동구 운림동 '647'번지 우제길 미술관을 뜻한다.

그는 창작산실이자 삶의 공간인 우제길미술관과 교감해온 자신의 작업세계를 선보이는 한편, 작품으로만 만남을 가져온 관객들과 또 다른 소통기



'Light 2007-Y-3H'

회를 만들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광주비엔날레, 현대 국제 미술전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민대상(예술부문), 현산문화상, 한국미술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4-6601.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가
서양화가 김영태·한국화가 양계남씨



김영태씨 양계남씨

광주시립미술관은 1일 서양화가 김영태(81)씨와 한국화가 양계남(62)씨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했다.

김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1회)을 졸업한 광주 서양화단의 원로화가다. 팔손의 고희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창작열을 보여주고 있다. 허백련 선생의 마지막 제자인 양 교수는 조선대에서 30여년간 재직하면서 자신의 호를 붙인 '월아(月娥)'장학회를 만드는 등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초대전은 오는 25~6월24일 시립미술관 본관 1층에서 개최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 수상 광주 소설가 정유정 씨

"심리 스릴러물 도전하고 싶어"

광주에서 활동 중인 정유정(41·광주시 북구 일곡동·사진)씨가 장편소설 '내 인생의 스텔러물'로 세계일보가 제정한 제1회 '세계청소년문학상'(고료 5천만원)을 수상했다.

정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명하다. 그리고 무명으로 글을 써왔던 8년 동안의 시간을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다. 기쁘지만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씨의 소설은 수배 중인 친구의 형에게 여권과 돈 봉투를 전달해야 하는 주인공이 목격자인 신안 앞 바다의 안개까지 가는 과정을 그린 '로드 로망'이다.

주인공이 경기도 Y읍에서 장삼, 송정리, 신안의 임자도 등을 지나 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노인인 소년·소녀들을 만나 동행하면서 펼쳐지는 나홀로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이번 문학상의 심사는 김주연·서영은·김경연·이순원·은희경·원종찬·안도현씨가 맡았다.

심사위원단은 "하나의 모험을

성장소설 '내 인생의...' 호평
초고 후 고치는데만 3년 걸려



처를 때마다 낯설음·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이해·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성장소설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마치 청룡열차를 탄 것처럼

숨가쁘게 읽히는 소설"이라고 말했다.

"초고를 쓰는 데 걸린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치는 과정이 3년 걸렸습니다. 처음 글을 쓰면서 자른 머리를 그 후론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아 허리까지 내려오게 길었는데, 수상 소식을 듣고 서야 잘랐네요."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집작해 하는 대목이다. 정씨는 이미 '열한 살 정은이'(2000년), '이별보다 슬픈 약속'(2002년), '마법의 시간'(이상 밝은세상 펴냄·2004년) 등 청소년 소설 3권을 출간했다.

정씨는 "청소년문학상으로 인정받긴 했지만 작품 활동을 청소년문학에 국한하고 싶지는 않다"며 "평소 꼭 써보고 싶었던 심리 스릴러 소설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평 출신인 정씨는 광주기독교대학을 졸업하고 광주보훈병원 간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등으로 일하다 전업작가로 변신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5월의 읽을 만한 책
'산문기행...' 등 10종 선정



피아니스트 김경아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 첼리스트 김창현

선조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산을 노닐던 여행기를 엮은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심경호·이가서)를 비롯한 책 10종이 30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5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뽑혔다.

바빌로니아 서사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길가메시'(윤정모·파미르), 땅 속에서 지구와 생물의 역사를 읽어낸 '땅속에서 과학이 숨는다'(장순근·가람기획), 오르세미술관을 소개한 '미리 가 본 오르세미술관(마리 셀리 등 지음, 유희성 옮김·한림출판사) 등도 함께 선정됐다.

이밖에 ▲고슴도치와 여우(이사야 벌린·강주현·애플북스)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장호순·개마고원) ▲다빈치 리포트-힘의 이동(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무국·매일경제신문사) 등도 5월의 읽을 만한 책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피아노 트리오의 밤 3일 광주문화회관

피아니스트 김경아,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 첼리스트 김창현씨가 호흡을 맞춘 '피아노 트리오의 밤'이 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G장조',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B장조 작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비가 1번 G장조' 등이다.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공부한 김경아씨는 현재 광주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양씨는 호주 퀸즐랜드대, 미국 신시내티움대를 거쳐 현재 전남대 등에 출강중이다.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독일 브레멘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김창현씨는 현재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원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featuring a woman and a man. Includes '영화안내' (Movie Guide) section with a list of films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Features a list of movies like '스파이더맨 3' and '날아라 허동구'. Includ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En Cinema. Features a list of movies like '눈부신 날에' and '고스트 라이더'. Includ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Features a list of movies like '극락도 살인사건' and '동갑내기 과외하기 2'. Includ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DC2 Cinema. Features a list of movies like '더블 타겟' and '날아라 허동구'. Includ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